

기획시리즈 변혁시대의 주역, 30대여성을 분석한다 (끝) 사회지표로 본 30대 여성

불안한 사회적 지위 속 다양성 추구

'투쟁' 연속, '가슴앓이' 심해도 새길 개척 포기 않을 터



30대 여성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사회적, 가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세대는 사회에 의존하지 않았고, 선배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혼자 부딪쳐 나가며 결혼, 유학, 직장 등을 모두 혼자 결정한다. 고독한 투쟁의 과정이다. 30대 유부녀 중에는 유학을 결정하는 여성들도 많다. 스스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슴앓이를 한다.” (35. 윤 모씨)

오늘을 사는 30대 여성의 제모습 찾기가 '투쟁'과 '가슴앓이'로 점철돼 있다는 윤 모씨의 말은 대부분의 30대 여성에게 부합되는 가감없는 평가다. 30대 여성들이 윗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의식적으로 깨어있다는 보편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사회가 아직 그들의 진보적인 의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여성으로서, 가정주부로서 30대 여성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건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진정한 삶을 모색해 가는 험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래저래 30대 여성들의 모습은 불안정하게 비춰진다. 30대 여성의 불안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 반대상황에 비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얼마전 (주)대우건설은 자사가 발행하는 사외보에서 독자 4천1백20명을 대상으로 주부의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를 했다.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주부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지만 바람직한 주부상에 대해서는 가족의 뒷바라지를 잘 하는 주부를 꼽았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이 조사는 현재 우리나라 30대 여성이 처한 사회, 가정적 환경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부가 직업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7%가 '자아 실현'을 위해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바람직한 주부상에 대해선 가족의 뒷바라지를 잘 하는 주부(82.3%), 집안을 잘 꾸미는 주부(13.5%)라고 대답해 전통적인 내조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이 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에 대해선 절대다수인 96.4%가 동의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가족들이 가사를 부담한다는 응답자도 78.2%나 됐다. 이 조사대로 그림을 그려 본다면 취업주부

에서 빠져 있다.

또다른 조사 결과는 가사노동 부담 현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지난 94년 대한가정학회가 조사한 도시근로자 가정주부

사회 여성의식 아직 이중적 30대 여성, 불안정한 지위 불구 그들만의 문화형성

의 생활시간 구조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그 절대량에 있어서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남편의 58%, 취업 주부 남편의 51%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다른 통계조사는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평가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고 가구주가 남자인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는 30.7%이고, 비맞벌이 가구는 69.3%였다.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백3만원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의 1백64만원 보다 39만원이 많았다. 이중 본인의 근로 소득은 51만원으로 남편의 근로 소득 1백61만원의 44.4%에 그쳤다. 이 통계자료는 또 학력이 높고, 남편 직업이 전문·사무직인 가구보다는 학력이 낮고 기능·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요인이 맞벌이의 가장 큰 동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고학력 30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아직 부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련의 설문조사 결과는 비록 설문대상자가 일부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지위를 가늠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0대 여성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사회적, 가정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들의 남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지난 가을 한국여성민우회의 회보에 실린 '30대 남편의 샌드위치살이를 아내는 아는지...'라는 제목의 글은 30대 남성의 불안한 심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 글 중 일부다.

“30대, 밑에서 치받치고 위에서 내리 찍히는 위치. 7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지 하고 싶어서 하는 생활은 아닌 것.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돈벌이 수단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대는 '충체적 불안시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취업주부, 직장여성으로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는 용기를 내는 사람도 30대에는 많다. 평생 투자하기에 뭔가 아쉽다 싶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결심하거나, 어학 공부를 위해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는 등의 사례를 30대에서는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24세 남편을 둔 김 모씨(32, 경기도 과천시)도 2년

기한으로 전 가족이 어학연수를 떠난 경우다. 남편의 퇴직금과 전세자금 통틀어 마련한 3천만원이 내식구가 2년간 미국에서 살 자금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멀쩡한 직장을 그만 두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불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씨는 “남편은 직장을 바꾸고 싶어했고, 나 또한 육아 문제로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쉬웠다. 무엇보다 길게 보면 지금 2년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성과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결단했다”고 말한다. 2년 투자해 그간 못다한 어학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만에 하나 어학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다면 하더라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전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깨어 있는 의식으로 살고 싶어 하고,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길을 개척하고 싶어 하는 것. 30대 여성이 아직은 불안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의 형태다.

(황금희 기자)

취재일기

30대 세대로 분석 미흡 아쉬움

오늘을 사는 30대 여성의 모습을 찾기 위해 기획시리즈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번번이 벽에 부딪혀야 했다. 본지가 기획한 '30대 여성' 시리즈와 비슷한 유형으로 '중년여성 모습'을 취재한 모 주간지 기자와 함께 “그러나 다들 세대론이 취재하기도, 연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을 정도다.

흔히 말하는 '세대론'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취재 대상 세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했고, 그들의 가정적, 사회적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했으며, 더불어 직업별, 학력별 특수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했다. 기·미혼 여성의 차이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점에서부터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몇이나 두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평직원인지, 간부사원인지, 대기업 직원인지, 영세업체에 근무하는지,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는지, 친정 혹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등 30대 여성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삶을 인식해야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 10회에 걸쳐 게재한 30대 여성 시리즈는 협소한 부문에서의 30대 여성의 삶을 들여다 보는 데 그치고 말았다. 전업주부와 취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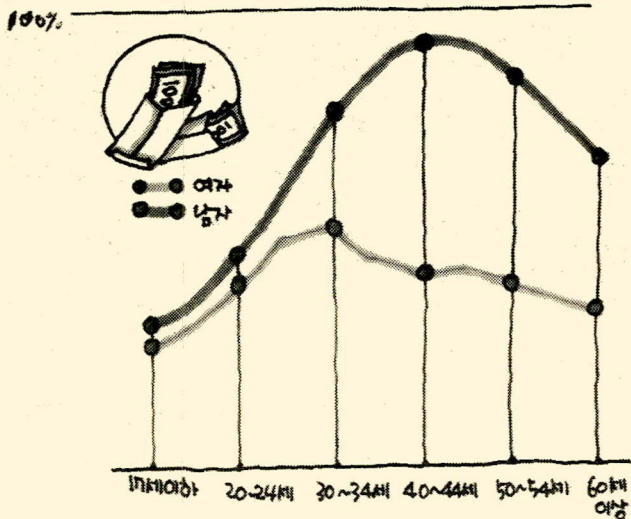
부로 나눠 그들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30대 여성의 특징 중 비교적 두드러진다는 것은 정치참여 방식과 성의식을 묶어 소개했다.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취재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80년 대 민주화 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체험하며 대학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취재 대상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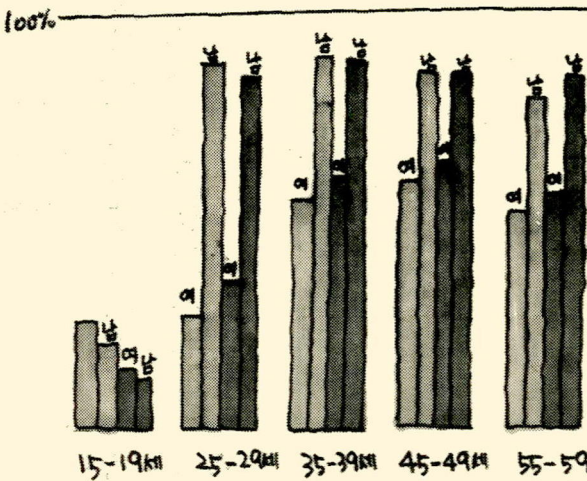
그래서 고졸이나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30대 여성들은 취재대상에서 본의 아니게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30대 여성의 제모습 찾기가 어려웠던 또다른 이유는 세대별 사회지표나 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관련사회통계 지표>, <여성통계연보> 등이 발간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구, 교육정도, 분야별 직업 종사자 등의 포괄적인 통계에 국한돼 있어 세대별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30대 대기업에 종사하는 30대 여성 수, 결혼과 함께 퇴직한 여성의 수, 퇴직 여성의 원인별 조사 등에 대한 통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세분화된 통계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이는 향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부문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치열한 삶에 비교해 취재 기자의 열정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며 기획시리즈는 마감한다.



성 및 연령계층별 월평균 임금총액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95년 자료·통계청)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준다.

지난 해 통계청이 전국 63개 도시 5천4백가구를 대상으로 한 '94도시근로자 맞벌이 가구 가계수지 조사 결과에

상사로부터는 자신들이 30대였을 때만큼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받으면서도 신세대 말단사원에게는 자신들만큼 열심히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위치. 나의 사회생활이 단